

## 첨단돌파전은 사상전, 두뇌전

김 동 건

사회주의강국을 성과적으로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과학기술분야에서 첨단돌파전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첨단돌파전을 힘있게 벌려야 나라의 과학기술전반을 빨리 발전시키고 지식경제의 토대를 구축해나갈수 있다.

사상전, 두뇌전은 첨단돌파전의 가장 위력한 방법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첨단돌파전은 현대과학기술의 명맥을 확고히 틀어쥐고 과학기술의 모든 분야에서 세계를 앞서나가기 위한 사상전, 두뇌전입니다.》(《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단행본 39페이지)

첨단돌파전에서 사상전, 두뇌전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를 때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에서 새로운 비약이 이룩되며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혁명적전환이 일어나게 된다.

첨단돌파전은 무엇보다먼저 현대과학기술의 명맥을 확고히 틀어쥐고 과학기술의 모든 분야에서 세계를 앞서나가기 위한 사상전이다.

첨단돌파전이 과학기술의 모든 분야에서 세계를 앞서나가기 위한 사상전이라는것은 그것이 과학자, 기술자들의 사상정신력을 총폭발시켜 나라의 과학기술을 세계의 선진수준에 올려세우기 위한 투쟁이라는것이다.

과학자, 기술자들은 첨단돌파전의 기수, 전초병들이다. 첨단돌파전에서의 성과여부는 과학자, 기술자들의 사상정신력에 달려있다. 과학자, 기술자들의 사상정신력은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의 근본요인이다.

나라의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데서 과학기술적 및 경제적잠재력도 중요하다. 그것은 과학기술적 및 경제적잠재력이 어떻게 마련되는가에 따라 과학기술의 발전이 성과적으로 이루어질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수도 있기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나라의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데서 과학기술적 및 경제적잠재력이 근본요인이라는것을 의미하는것이 아니다.

과학기술적 및 경제적잠재력이 아무리 크다 하여도 과학자, 기술자들이 강한 정신력을 발휘하지 못하면 과학기술이 침체와 답보를 면할수 없다. 그러나 과학자, 기술자들이 불굴의 정신력을 발휘하게 되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불가능도 가능으로 전환시키며 과학기술발전에서 비약을 이룩할수 있다. 그런것만큼 첨단돌파전을 힘있게 벌려 나라의 과학기술을 세계적인 수준에 올려세우자면 과학자, 기술자들의 사상정신력을 최대한로 발양시켜야 한다.

첨단돌파전에서 과학자, 기술자들이 발휘해야 할 사상정신력에서 기본은 수령결사옹위 정신이다.

첨단돌파전은 본질에 있어서 수령의 유훈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이다. 첨단을 돌파하여 우리 나라를 최단기간내에 과학기술강국으로 전변시키는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이며 경애하는 원수님의 구상이고 의도이다.

일찌기 과학과 기술을 나라와 민족의 부강번영을 위한 위력한 추동력으로 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우리 조국을 과학기술면에서도 세계의 전렬에 당당히 올라선 강국으로 건설할데 대한 웅대한 구상을 펼치시고 첨단돌파사상을 제시하시였으며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조직령도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우리 조국이 시련을 겪고있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에는 것처럼 아끼시던 귀중한 자금까지 나라의 국방과학을 비롯한 과학기술부문에 돌리시여 우리의 과학기술이 세계를 앞서나갈 수 있는 확고한 토대를 마련해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가까운 앞날에 우리 나라를 과학기술강국으로 전변시키는것을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선차적인 목표로 내세우시였으며 온 나라에 첨단돌파의 열풍이 세차게 휘몰아치도록 조직령도하고계신다. 그리고 선군혁명령도의 그 바쁘신 나날에도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우선적으로 풀어주시였으며 과학자, 기술자들이 첨단돌파전에서 기적의 창조자, 창조의 영웅이 되도록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주고계신다.

수령결사옹위정신은 김일성민족의 고유한 사상정신적특질이며 무한대한 정신력의 근본핵이다.

과학자, 기술자들은 첨단을 돌파하기 위한 오늘의 투쟁에서 수령결사옹위의 기치를 높이 들고나가야 한다. 수령결사옹위정신으로 살며 투쟁하는 과학자, 기술자들에게 점령 못할 과학기술의 요새란 없다. 과학자, 기술자들이 과학으로 당과 수령을 받들겠다는 결사의 각오와 의지를 가지고 첨단돌파전에 떨쳐나설 때 정신력을 최고의 열도에서 폭발할수 있으며 이런 신념과 의지로 돌진해야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에서 세상을 놀래우는 기적과 혁신이 창조될수 있다.

누구도 걸어보지 못한 창조의 생눈길을 헤치며 남모르는 고생도 겪고 힘겨운 극한점을 끊임없이 돌파해나가야 하는 과학자, 기술자들에게 있어서 수령결사옹위정신은 무한대의 힘과 지혜를 주고 과학기술발전에서 기적을 창조해나가도록 하는 가장 위력한 사상정신적무기로 된다.

첨단돌파전에서 과학자, 기술자들이 발휘해야 할 사상정신력에서 중요한것은 자강력제일주의이다.

첨단돌파전은 과학기술을 발전시켜 나라의 부강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이다. 첨단을 돌파하기 위한 투쟁의 앞길에는 의연히 헤아릴수 없는 시련과 난관이 가로놓여있다.

특히 우리를 압살하려는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반동세력들의 경제적제재와 과학기술봉쇄책동은 날이 갈수록 악랄해지고있다. 시련과 난관앞에서 겁을 먹고 주저앉는다면 노예의 운명을 면할수 없으며 종당에는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도 지켜낼수 없다.

남의 힘을 쳐다보면 사대주의, 패배주의가 초래된다. 사대주의, 패배주의는 과학기술발전, 나라의 운명을 망쳐먹는 위험한 독소이다.

현실은 첨단돌파전에서 자강력제일주의정신을 높이 발휘해나갈것을 요구하고있다. 자강력제일주의는 과학자, 기술자들이 부닥치는 모든 시련과 난관을 과감히 뚫고 제힘으로 과학기술발전에서 혁명적전환을 가져오도록 하는 무궁무진한 정신력의 원천이다.

그 어떤 불리한 조건과 환경속에서도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체로 살아나가려는 강한 정신력에 기초한 자체의 과학기술력이 자강력의 정수라고 말하는 리유가 여기에 있다.

자기의 힘과 기술, 자원에 의거하여 주체적력량을 강화하고 자기의 앞길을 개척해나가는 혁명정신에서 과학자, 기술자들의 창조적힘과 지혜도 나오고 분발심도 생기게 된다.

자강력제일주의를 높이 발양시키는데 과학자, 기술자들이 첨단돌파전에서 자기의 사명과 임무를 다해나갈수 있는 담보가 있다.

첨단돌파전은 다음으로 현대과학기술의 명맥을 틀어쥐고 과학기술의 모든 분야에서 세계를 앞서나가기 위한 두뇌전이다.

첨단돌파전이 과학기술의 모든 분야에서 세계를 앞서나가기 위한 두뇌전이라는것은 그것이 과학자, 기술자들의 창조력을 최대로 폭발시켜 나라의 과학기술을 세계의 선진수준에 올려세우기 위한 투쟁이라는것이다.

첨단을 돌파하자면 과학자, 기술자들의 정신력과 함께 창조력을 높이 발양시켜야 한다. 강한 정신력에 높은 창조력이 안반침될 때 첨단돌파전에서 기적을 창조할수 있다.

과학자, 기술자들의 창조력은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 실제적인 힘이다. 과학기술의 발전은 새것의 창조를 전제로 하며 새것의 창조는 과학자, 기술자들의 높은 창조력에 의해서만 이루어질수 있다.

지식경제시대인 오늘날 나라들사이의 과학기술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있다.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첨단과학기술에서 뒤떨어지면 남의 기술의 노예가 된다.

과학기술이 뒤떨어졌다고 하여 앞선 나라들에서 몇십년전에 해결한 과학기술적문제들을 붙잡고 어물거리거나 낮은 단계에서 한계단한계단 툴아올라가는 식으로 하여서는 언제가도 급속히 발전하는 현대과학기술의 요새를 점령할수 없다.

과학기술의 일정한 토대와 주체적인 과학기술력량이 마련된 조건에서 대담하게 목표를 높이 세우고 남이 걸어온 단계들을 뛰어넘어 최첨단과학기술을 연구개발하고 발전시키는 데로 나가야 한다.

과학기술발전에서 요행수란 있을수 없다. 과학기술분야에서의 모든 성과는 과학자, 기술자들의 높은 창조력에 의하여 마련되는것이다.

세기를 이어오는 제국주의자들과 그 추종세력들의 극악한 제재와 봉쇄속에서도 핵기술을 틀어쥔 자랑찬 승리의 력사와 전통, 우리 식으로 인민경제의 현대화, 정보화를 다그쳐나가고있는 오늘의 현실은 과학자, 기술자들의 창조력이야말로 첨단돌파전의 위력한 무기라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

첨단을 돌파하기 위한 과학자, 기술자들의 창조력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핵심기초기술을 비롯한 첨단과학기술을 발전시킬수 있는 능력이다. 핵심기초기술을 비롯한 첨단과학기술의 발전은 첨단돌파전의 중심고리, 주타격방향이다.

현시대 과학기술발전에서 핵심기초기술은 정보기술, 나노기술, 생물공학 등이다. 최신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사회경제생활에서의 과학기술적변혁들은 다 핵심기초기술의 발전에 기초하여 이루어진다.

핵심기초기술의 발전은 새 재료기술, 새 에너지기기술, 우주기술, 핵기술과 같은 첨단과학기술분야와 기계, 금속, 채취공업, 경공업, 농업을 비롯한 응용기술분야의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오며 나라의 경제구조도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개변할수 있게 한다.

그런것만큼 정보기술, 나노기술, 생물공학을 발전시키는데 선차적인 힘을 넣어야 하며 특히 정보기술, 프로그램기술을 빨리 발전시키는데 힘을 집중하여야 한다.

첨단과학기술에 기초한 기술공학의 발전이 없이는 국방공업과 전반적인민경제를 경제강국건설의 요구에 맞게 현대화, 정보화할수 없다. 국방과학기술을 더욱 발전시키고 전력공업, 금속공업, 화학공업 등 주요공업부문들을 추켜세우며 농업부문에서 식량문제, 먹는 문제를 해결하자고 해도 기계공학, 금속공학, 열공학, 재료공학을 비롯한 기술공학발전에 큰 힘을 넣어야 한다.

기초과학은 과학기술강국을 떠받드는 주추이다. 기초과학이 든든해야 나라의 과학기술이 공고한 토대우에서 끊임없이 발전할수 있다. 나라의 과학기술수준은 결국 기초과학발전수준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말할수 있다.

수학, 물리학, 화학, 생물학과 같은 기초과학부문에서 세계적인 연구성과들을 이룩하고 과학기술의 종합적발전추세의 요구에 맞게 새로운 경계과학을 개척하여야 한다.

현실은 첨단돌파전에서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이 핵심기초기술과 중요부문들의 기술공학, 기초과학을 발전시킬수 있는 창조력을 지니고 그것을 높이 발양하여야 최단기간내에 과학기술분야에서 세계를 디디고 올라설수 있다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

오늘 첨단을 돌파하기 위한 우리의 투쟁과업은 매우 방대하며 우리의 앞길에는 의연히 많은 애로와 난관이 가로놓여있다. 그러나 모든 과학자, 기술자들이 수령결사옹위정신과 자강력제일주의로 충만된 무한대한 정신력과 높은 창조력을 최대로 발양해나간다면 첨단의 높은 봉우리를 점령할수 있으며 가까운 앞날에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과학기술강국을 일떠세울수 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이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부강번영과 밝고 창창한 미래를 위하여 당의 품속에서 쌓고 다져온 무궁무진한 정신력과 창조적힘을 최대로 폭발시켜야 할 때이다.

과학자, 기술자들은 우리가 강해지고 잘사는것을 바라지 않는 제국주의자들과 온갖 반동들의 비렬하고 악랄한 책동을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짓밟개버리고 사회주의제도를 과학기술로 옹호하고 빛내이기 위한 투쟁에서 기수, 전초병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나가야 한다.

모든 과학자, 기술자들은 시대와 력사앞에 지닌 자기의 사명과 임무를 깊이 자각하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따라 자기의 열정과 창조적지혜와 재능을 남김없이 발양시켜나감으로써 오늘의 첨단돌파전에서 승리자의 영예를 떨쳐야 할것이다.